

[붙임] 나눔의 집 일본군 ‘위안부’ 역사 기록 관련 자료 분석 결과

## 나눔의 집 일본군 ‘위안부’ 역사 기록 관련 자료 분석 결과

### □ 개요

- 5월 19일 MBC PD수첩 ‘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?’ 보도에서부터 8월 11일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보도까지의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나눔의 집의 기록 현실을 분석하였다.
- 보도된 사진자료 중심으로 나눔의 집의 기록 현실 일부를 소개한다. 편의상 각각의 사진들 중 제1행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으로 ①, ②와 같이 번호를 붙여 설명한다.

### □ 2019년 생활관 증축공사 과정에서의 기록 훼손·절멸



- 장맛비에 할머니들의 물품과 기록이 훼손되기 시작하자 나눔의 집이 취한 조치는 비닐을 덮고(①) 천막천을 덮어놓는(②) 것뿐이었다.
- 빗물이 고여 훼손 정도는 매우 심각했다(③). 건물 밖에 1주일 이상 방치되었다. ○○○ 할머니 옷이라고 적힌 박스가 훼손되고(④) ○○○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물품과 기록도 훼손되었다(⑤).
- 물품과 기록을 즉각 정리·복원하지 않고 쌓아놓음으로써(⑥)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상당수가 훼손되고 말았다.



- 증축공사가 끝난 후 ○○○ 할머니의 방의 가구 중 침대 등은 찾았지만, 서랍장과 장롱은 훼손되어 새 가구로 대체했다(①). 할머니의 한복과 시계는 찾지 못했고, 사진도 찾지 못한 것이 많다.
- 2017년에 돌아가신 고 ○○○ 할머니의 방은 찾은 물건들로 일부 복원되었으나 아직 모든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(②). 고 ○○○ 할머니의 방은 2019년 훼손 이전에 촬영해놓은 사진(③)이 있어, 그나마 원래의 모습을 남길 수 있었고, 원래의 모습과 가까이 일부 복원할 수 있었다.



- 생활관 1층 할머니들의 방 세 곳의 모습인데,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 했으나 복원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(①), 기록이 상자에 담겨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다(②, ③).

□ 할머니들의 기록을 교육관 1층과 2층 베란다에 방치



- 교육관 베란다는 햇빛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온습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록 보존이 불가능한 악조건이다. 1층 베란다에는 물품과 기록이 마대자루에 넣어져 방치되어 있고(①), 해외 전시에서 돌아온 할머니들의 그림 작품이 항공운송용 포장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(②, ③)



- 2층 베란다에는 할머니들의 작품이 아무런 포장 없이 방치되어 있고(①),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으며(②), 국민들의 응원 기록이 비닐 봉지에 쌓여 방치되어 있다(③).



- 2층 베란다에는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된 기록물이 방치되어 있기도 한데(①), 제습용품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볼 때,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(②).

□ 할머니들의 기록을 제1역사관 창고에 방치



-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, 입구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(①) 창고에는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이 먼지에 쌓여 방치되어 있다(②, ③). 끝.